

영산강 민물 덮친 전복양식장 ‘썩대밭’

민물로 염도 낮아져 80% 이상 집단 폐사

피해액 25억 추산...목포시 등 실패과악

영산강하굿둑 배수갑문 개방으로 쓰레기와 함께 흘러내린 강물이 목포 앞바다 전복양식장을 덮쳐 전복이 집단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목포시와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영산강하굿둑 배수갑문을 통해 방류한 영산강 강물이 목포시 달동 외달도 전복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전복 성패 80% 이상이 폐사했다.

이 곳에서는 5어가에서 한 칸에 가로세로 2m 크기의 양식장 250칸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전날 기준 전복 치사율은 성패의 경우 80%, 치패는 30~40%로 추정됐으나 수일내 모두 폐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민들은 칸당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민들은 전복의 집단폐사 원인으로 영산호 수문개방에 따른 강물 방류를 꼽고 있다.

민물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전복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염도(鹽度)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양식장 인근의 바닷물 염도는 현재 16.7~20퍼밀(%)을 오르내리면서 전복양식의 한계치 26퍼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외달도 조영철(50) 이장은 “18년 전부터 이 곳에서 전복양식을 해 왔지만 올 해처럼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이라며 “출하를 앞둔 전복이 모두 폐사해 막막하다”고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달동 외달도 전복양식장의 전복이 영산강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밀려든 민물로 집단 폐사해 있다. (사진=독자 제공)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이날 오전 남해 수산연구소, 전남도 수산과학원 등

과 함께 외달도 전복양식장을 방문해 현장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경기 광주 중대동서 6중 추돌사고

13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광주시 중대동 선광주유소(성남방향) 인근 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도로는 교통혼잡을 빚기도 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주행 중이던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4대, 승합차 2대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보험처리 문제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아내 뺨때린 남편,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차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아내와 경찰관을 폭행한 A(39)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1시40분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자택에서 아내 B(37)씨를 폭행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 수 차례 때렸고, 경찰에게 연행되면서 경찰관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관계자는 “말다툼이 벌어져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멧돼지 쫓다 오발탄...“포수가 포수 씩” 1명 숨져

충남 당진에서 유해조수 피해방지 활동 중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1명이 숨졌다.

13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당진시 정미면 한 옥수수밭에서 A(55)씨가 B(50)씨와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다 B씨의 옆통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함께 멧돼지를 포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시간대가 있으며, 이들이 멧돼지를 쫓던 시간은 규정상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말다툼 중 후배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붙잡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던 후배를 흥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50분경 흥덕구 병동동 한 거리에서 동네 후배 B(24)씨와 말다툼하던 중 흥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12일 오후 2시경 충북 음성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천 한탄강댐서 신원미상 남성 시신 1구 발견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경 연천군 연천읍 한탄강댐 인근에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지난 3일 실종된 포천 뉴시터 관리인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뉴시터 관리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저수지에서 5km 거리에 있는 한탄강 영로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상태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 윤미향 의원 소환...‘정의연 의혹’ 수사 석달만

기부금 및 안성 쉼터 의혹 등 소환 조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후 1시30분경 황령협 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기부금 횡령, 안성 쉼터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 시절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일부 모금한데 대해 이를 횡령한 정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기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쉼터에 대한 고가 매입 혐의도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은 안성 쉼터 부지를 약 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

됐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 흐름이 리베이트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기부금 전용 의혹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할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성 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주택 소유자가 9억원에 매물로 내놨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려보기 위해 노력했고, 매도인은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가격을 7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기자

열대야속아파트 정전

5곳...2시간 만에 복구

전력 계량 설비에서 문제

광주 도심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 2시간여 만에 복구돼 열대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8분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아파트 5개 단지 27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전 응급 복구반은 한 아파트단지 내 전력 계량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고, 전력 공급선로가 연결된 인접 아파트 4개 단지도 정전된 것으로 봤다.

한전은 철야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10여 분 만에 아파트 단지 4곳의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

또 고장이 난 단지 내 전력 설비 수리를 지원, 해당 아파트(433가구)에도 이날 오전 3시32분부터 전력이 정상화됐다.

주민들은 폭우 뒤 찾아온 열대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한편, 광주 지역은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7도를 기록해 열대야 현상(밤 최저 기온 25도 이상)이 나타났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